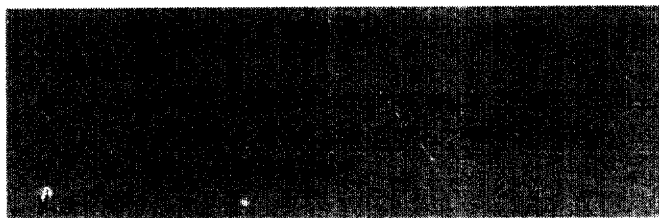


## 1973년 이후의 아르헨티나 사회의 정치적 폭력과 오스발도 소리아노의 소설세계

- 『더 이상의 고통이나 망각은 없을 것이다』와  
『겨울의 병영』을 중심으로 -

박종율(조선대학교 스페인어과 강사)



### I. 들어가면서

198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소설은 이 나라가 겪어온 가혹한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76년 3월 군사쿠데타를 통해 이사벨 페론(María Estela Martínez de Perón, 일명 Isabel) 정부를 축출한 후 1982년 말비나스 전쟁(Malvinas, 영국명은 Falkland)에서 패배해 1983년 10월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에게 정권을 넘겨 줄 때까지 약 8년간 나라를 황폐화시킨 군부독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호르헤 비델라(Jorge Rafael Videla) 장군과 그의 동료들이 국민적 생존권을 위협했던 페론시대의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폭력 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아르헨티나를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과거 군정의 탄압을 무색케 하는 무차별적인 국가테러와 폭력을 자행했던 ‘국가재건 계획(el 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sup>1)</sup>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공할 역사를 픽션화한 ‘쁘로세스 소설(la novela del Proceso)’<sup>2)</sup>을 특집으로 다룬 다양한 학회가 아르헨티나, 스페인, 미국, 독일 등지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그에 따른 논문집들이 출판되면서 침묵에 대한 자성과 군사정권의 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의 시작을 1976년 비델라 장군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혼돈과 무질서는 1973년 페론의 복귀와 정치적 제도화계획이 실패하면서 좌·우익 페론주의자들의 무력충돌에 의해 이미 시작되어 군부가 개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더러운 전쟁의 원인은 뿌로세스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군부이전 3차

- 1) 1976년의 쿠데타 후에 좌익 게릴라에 대한 철저한 소탕작전의 실행과 병행하여 페론파를 비롯한 반정부단체에 대한 체포, 구금 등 폭력적인 탄압행위가 빈번히 실시되어져자 소위 ‘더러운 전쟁 la guerra sucia’이라는 비난과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 국가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3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해졌고, 1만-2만 명의 시민이 실종되거나 국가보안군에 의해 비밀리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러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서 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고 군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의 많은 중산층들은 군사정권을 페론 정권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원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집단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에 의해 실행되어지고 있는 전제적이고 강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민만식·권문술, 1985: 86-87)

군부의 의해 붙여진 ‘더러운 전쟁’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담고 있다.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이 자행한 억압은 게릴라와 반 정치세력이 시도한 새로운 특징의 전복의도에 맞서 필요 불가결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납치나, 폭탄 및 총기테러를 자행한 테러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수행중인 국가재건 계획을 반대하는 모든 이념적 행위까지 체제 전복자로 간주할 것이다”(Avellaneda, 1986: 163)라는 비델라 장군의 발표문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새로운 형태의 억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불법 폭력이나 파괴 행위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인 사상과 문화적인 요소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더러운 전쟁’은 반체제세력에 대한 억압과 더불어 문화말살을 기도한 ‘추악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뿌로세스 소설’이라는 용어는 마리오 세사레오(Mario Cesáreo)가 미네스타 스페인·중남미 이데올로기 및 문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집 *Fascismo y experiencia literaria: Reflexiones para una reanonización*에 발표한 “Cuerpo humano e historia en la novela del Proceso”란 논문에서 사용하면서 보편화되었으며, ‘국가재건계획’을 테마로 다룬 모든 소설을 칭한다(Cesáreo, 1985: 501).

페론주의 정권에서 기인하고, 더 나아가 페론주의의 대중주의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오스발도 소리아노(Osvaldo Soriano)의 『더 이상의 고통이나 망각은 없을 것이다(*No habrá más penas ni olvido*)』(1980)와 아르헨티나 폭력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을 물으면서, 침묵도 범죄에 공모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폭력의 한 형태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겨울의 병영*Cuarteles de invierno*』(1982)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들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1970년대 이후의 아르헨티나 정치적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1970년대 이후의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현실과 오스발도 소리아노

첫 번째 작품인 『슬픔, 고독 그리고 끝(*Triste, solitario y final*)』이 발표되었던 1973년까지의 소리아노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주의를 선호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흑색소설(*la novela negra*)’<sup>3)</sup>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작가 겸 신문기자였다.(Catelli, 1983: 26) 소리아노에 의해 재창조된 찰들러(Raymond Chandler)의 신화적 탐정 필립 멜로우이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도 작가의 이러한 성향은 잘 드러난다. 그는 정의감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활동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조사 방법을 채택하는 멜로우이의 시선을 통해 헐리

3) ‘흑색소설’이라는 용어는 1945년부터 Morcel Duhamel이 프랑스 Gallimard 출판사를 통해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새로운 형식의 탐정소설 및 범죄소설을 검은색 책표지에 알맞은 ‘Série Noire’라는 이름 하에 시리즈 불로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유래되었다. 이때부터 유럽에서는 이 용어가 문자 그대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며, 스페인 어권에서도 ‘Serie negra’ 또는 ‘Novela negra’라는 용어가 전통적인 탐정소설인 추리소설과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Novela negra’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hard boiled story’, ‘crook story’, ‘tough story’ 등으로 하위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범죄자가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소설을 총칭하여 ‘Black Novel’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와르’라는 프랑스어나, 아직 보편성이 결여된 ‘노벨라 네르라’라는 스페인어 대신에 ‘흑색소설’이라는 용어로 번역해 사용하고자 한다.

우드 사회의 어두운 면은 직접적인 형태로 고발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경제난과 폭력사태는 탐정과 작품 속에 등장하는 허구적 인물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소리아노와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 아르헨티나 유력 일간지였던 “라 오페니온(La Opinión)”사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1974년 스페인에서 복귀한 페론과 페론정권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1971년부터 시작했던 기자생활을 그만두게 되었고 로페스 레가(José López Lega)로 대표되는 극우집단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 참여적인 성향의 작가로 변하며, 그의 두 번째 소설인 『더 이상의 고통이나 망각은 없을 것이다』를 집필하기 시작한다.(Angela del Pilar, 1993: 220) 이 시기의 아르헨티나 상황은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사회·정치적 혼란에 빠진다.<sup>4)</sup> 1973년 3월 엑토르 캄

4) 아르헨티나 정치상황은 시대적으로 1930년대 이전에는 보수파와 진보파의 대립으로, 또 1930년대 이후에는 군부, 페론주의자 민간정부가 경쟁의 주류를 이루었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강력한 군부의 통치시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이나 당파를 에워싼 소수집단간의 각축과 군부쿠데타 등으로 점철되어 서구식 민주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정치풍토였다. 1943년 6월 쿠데타의 주축파인 연합장교단(Grupo de Oficiales Unidos)의 유력한 지도자로 대두한 페론이 1946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주요정책으로 수입대체산업화와 민족주의적 경제정책과 군의 근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산업엘리트와 군부의 지지를 쉽사리 얻어냈고, 체제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조직노동을 조합주의체제 속으로 편입시켜 페론주의체제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populismo)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적 성공을 거두어 1951년 재집권에 성공하나, 이때부터 군부의 지지는 약화되고 1955년에 이르러서는 계속되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페론주의 연합의 한 지주인 조직노동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교회측의 노조에 개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가톨릭 교회와의 밀월관계가 붕괴되면서 1955년 9월 에두아르도 레오나르디(Eduardo Leonardi) 장군이 주도한 쿠데타에 의해 페론이 축출된다. 그 이후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Pedro Eugenio Aramburu) 군사정권은 페론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보호육성정책, 그것의 정치참가제도, 환관리제도 등 페론시대에 취해진 정책을 모두 무효화할 뿐 아니라 국가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미명하에 페론주의자의 축출에 들어갔다. 이러한 정치형태에 대해 노동자, 학생, 지식인들의 투쟁이 이어졌고(1969년 5월 초 ‘코르도바사태 Cordobazo’가 일어나면서 그 절정에 달함), 페론파의 분국화가 진행되어 페론파의 청년들과 군인들로 이루어진 페론주의군(FAR)과 Montoneros 및 공산당 탈당조로 이루어진 아르헨티나 해방전선(FAL), 페론파, 모택동파, 트로츠키주의파 등 각파의 게릴라 조직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혼돈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사실 60년대 말의 사회 정치적 혼란은 주로 이러한 페론파의 게릴라 부분에 의해 야기된 것인데, 이러한 충을 포함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할 인물은 페론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알레한드로 라누세(Alejandro Lanusse) 정권(1971-1973)은 페론주의를 재합법화하고

쁘라(Héctor Cámpora)가 스페인에 망명 중이던 페론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후 10월 대통령선거에서 페론이 국민의 6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어 제3차 페론정권이 성립될 때까지만 해도 좌·우익세력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공산당도 지지를 표명했을 정도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실제로 신페론주의 정부가 연달아 제출한 정치범의 석방, 사회주의국가와의 국교수립 등의 정책은 아르헨티나가 급속한 '좌경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군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암살기도로 인한 인민혁명군(Ejército Revolucionario del Pueblo)의 불법화, 좌파의 집회와 출판금지 등 혁신적인 좌파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이러한 환상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좌우세력의 균형 위에 선 페론의 재임 중에는 아직 그 통제력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74년 7월에 페론이 병사하고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에 승격하자 시계추는 결정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사벨정권의 배후 인물은 우익 페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회복지부장관 로베스 레가였는데, 그는 1974년 10월 온건주의 관료내각을 구성하도록 이사벨을 설득시켰고, 좌익 페론주의자들을 포함한 좌익을 축출하도록 요구했다. 극우테러단체인 아르헨티나 반공동맹(Alianza Anticomunista Argentina, 일명 AAA)도 레가의 사주를 받아 조직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사벨시대에는 미국의 KKK<sup>5)</sup>식의 테러행위가 이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특히 이사벨은 게릴라들간의 싸움에서 안보요원들에게 자유행동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페론파 좌파의 게릴라조직은 지하로 잠복하고 다시 도시 게릴라활동을 개시했다. 이리하여 이사벨정권하에서는 좌우 테러가 난무하고 그 희생자는 날마다 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좌익이나 우익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두려움은 인민, 특히 도시중간계층에 엄습했다. 이사벨정권의 통치능력 결여는 이미 누가

---

페론의 복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회주의를 내거는 급진파조차 페론파를 자칭할 정도로 페론의 영향력은 대단했다.(Cavarozzi, 1988: 45-70)

5) 미국태생의 백인 신교도들이 결성한 비밀 결사로 구교도, 유대인, 동양인을 배척하는 운동을 전개함.

보아도 분명해졌고 군부의 개입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1976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예측된 쿠데타가 발생했고, 아르헨티나는 다시 어두운 군정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민만식·권문술, 1985: 85-86; 後藤政子, 1985: 144-145)

국내에서 페론주의의 허구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던 소리아노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던 1976년 브뤼셀로 망명을 떠나 이후 파리에 정착한다. 이때부터 훌리오 꼬르타사르(Julio Cortázar), 솔라리 이리고옌(Solari Yrigoyen), 카를로스 가베타(Carlos Gabetta) 등과 함께 반군부독재 정치노선을 유지한다. 이 기간, 즉 1978에서 1979년 사이에 그의 세 번째 소설 『겨울의 병영』(1982)을 집필한다. 1980년 그 동안 편집을 마쳤던 『더 이상의 고통이나 망각은 없을 것이다』가 바르셀로나 “브루게라(Bruguera)”출판사를 통해 발표된다. 이 작품은 초판 프롤로그를 통해 작가가 직접 밝히는 바와 같이(2판부터는 프롤로그가 삭제되어 출판됨), 페론의 3차 집권기 중 1973년 11월에서 1974년 7월까지 벌어지는 좌·우익페론주의자들간의 격렬한 폭력사태를 다루고 있다. 콜로니아 벨라라는 허구의 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두 세력간의 싸움은 그 동안 평온했던 도시를 죽음의 도시로 변화시키며 군 개입의 명분을 만들어 준다. 페론의 이름으로 죽고 죽이는 주민들은 살인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결정론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무정치, 무정부 사회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국가의 재통합을 외쳤던 페론주의의 공간은 단지 죽음의 공간임을 고발한다. 이 작품은 1983년 엑토르 올리베라(Héctor Olivera)에 의해 영화화되어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다. 1982년에는 『겨울의 병영』이 위와 동일한 출판사에서 발행된다. 이 작품 또한 두 번에 걸쳐 영화화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외국인 소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이미 군사정권이 지배한 콜로니아 벨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쇠퇴기에 접어든 복싱 선수와 탱고 가수의 이야기다.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국가를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테러를 자행한 후 국민적 관심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중축제를 개최하는 군부의 희생자로 변해

가는 평범하고 소외된 이들을 통해 이미 제도화된 위로부터의 폭력을 고발한다. 또한 군부에 의해 죽어 가는 이들에 대해 시종 무관심하고 심지어 환호까지 보내는 주민들을 통해 이미 사회 전반에 일상화된 폭력을 비판한다.

결국 군부는 국내 분열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 국가를 경제적 파탄으로 이르게 한 행정정책의 실패, 말비나스에 대한 영국과의 전쟁 패배로 인하여 정치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으며,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뤘었던 총선을 1983년 10월 30일에 실시하여 정권을 급진당의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에게 넘겨주고 병영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민만식·권문술, 1985: 91) 그리하여 아르헨티나의 정국이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자, 소리아노는 이듬해인 1984년 귀국할 수 있게 된다. 같은 해 출판된 『예술가들, 미친 자들 그리고 범죄자들(*Artistas, locos y criminales*)』 그리고 1988년에 출판된 『반역자들, 몽상가들 그리고 도망자들(*Rebeldes, soñadores y fugitivos*)』을 통해 일간지 “라 오빠니온”에 실렸던 그의 기고문들과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모아 발표했다. 1987년 마드리드에서 발표된 네 번째 소설인 『나무숲에 갇힌 사자(*A sus plantas rendido un león*)』는 말비나스 전쟁을 다루면서 아르헨티나 군부의 무능력함을 비판한다. 그리고 1993년에 바르셀로나에서 발표된 『조국의 눈(*El ojo de la patria*)』은 아르헨티나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비밀공작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스파이 소설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소리아노는 역사와 사회의 변동기를 요약할 수 있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선택하여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 재구성함으로써 아르헨티나에 일상화된 폭력과 국민 고통의 근본 원인 규명과 그 올바른 인식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곧 역사와 사회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건들을 통해 아르헨티나 최근 역사의 문제를 형상화함으로써 그 극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소리아노 작품의 근본적인 주제가 된다.

### III. 『더 이상의 고통이나 망각은 없을 것이다』: 페론주의 허구성

작가가 1976년 군부쿠데타 이후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1980년 스페인에서 발표한 이 작품은 페론주의자인 이그나시오 시장의 반대 세력과 우호세력간의 과벌투쟁, 즉 1976년 이전 페론의 3차 집권기에 벌어지는 좌·우익 페론주의자들간의 격렬한 폭력사태를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더 이상의 고통이나 망각은 없을 것이다』는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탱고 가수 까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sup>6)</sup>과 그의 친구 알프레도 레페라(Alfredo Lepera)가 부른 “사랑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Mi Buenos Aires querido)”에서 발췌한 에피그램으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여  
다시 너를 찾을 땐  
더 이상의 고통이나 망각은 없을 것이다.”(8)

이 소설 제목의 출처를 제공하는 이 인용문은 서술의 목적, 작가의 상황, 문학의 기능을 사전에 독자들에게 암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행은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지적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 전체를 상징하는 향수적인 공간이며, 좁은 의미로는 탱고의 발생지이자 가르델의 음악적 고향으로 아르헨티나 대중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다.

두 번째 행에 나타난 회귀의 마음에서 작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

6) 아르헨티나의 가장 대중적인 가수이자 서민들의 영웅인 까를로스 가르델은 1887년 12월 11일 프랑스 남부 Toulouse에서 태어나, 1935년 7월 24일 비행기 사고로 콜롬비아 Medellin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초기에는 주로 왈츠나 꾸에카, 차카레라스, 가또스 등의 토착 민속 음악을 연주해오다가, 드디어 1917년 역사적으로 탱고의 최초의 노래인 *Mi noche triste*를 발표하면서 팬들의 열광에 힘입어, 절친한 친구였던 알프레도 레페라와 함께 *Volver, Quieras, Por una cabeza, Cuando tú no estás* 등의 불멸의 탱고곡들을 내면서 탱고의 선구자이면서 상징적 인물로 지리를 굳힌다. 카리스마적인 수려한 외모를 가진 그는 지금까지도 ‘매일 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El que cada día canta mejor)’과 같은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르헨티나인들의 가슴속에 불멸의 연인으로 남아있다(우덕룡 외, 2000: 428-429)



어저 있지만 고향의 현실을 늘 기억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망명 중에 발표된 이 작품은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세계를 이해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작품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또한 회귀는 공포와 고독의 시간인 현재가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 번째 행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과거를 망각하지 않고 과거를 통해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아르헨티나인들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가르델의 노랫말을 통해 1973년 18년간의 해외망명에서 돌아와 전 국민의 지지 하에 3차 집권에 성공한 페론의 복귀와 혼돈의 경험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문학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도를 독자들에게 미리 암시한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꼴로니아 벨라는 페론 복귀 이전에는 주민들 사이에 결속력이 강한 평온한 도시였다. 그러나 페론이 복귀한 이후 페론주의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암투 속에 이러한 연대감은 점점 약해지고 불신과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러한 헤게모니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 세력은 페론 복귀 이전에 페론주의 반대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악한 자들(los malos)’ 역할을 하는 이들은 이 순간까지 페론을 위해 투쟁했던 현 시장인 이그나시오와 지방공무원인 마떼오를 ‘스파이(infiltrado)’로 몰아 세운다.

- “-당신은 스파이를 데리고 있소 -서장이 말했다.
- 스파이?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마떼오 밖에 없어.
- 스파이가 있소. 이그나시오씨, 분명히 말하지만 그를 쫓아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요.”(11)

이 때부터 양 세력간의 대립은 점점 첨예해지고 부조리한 색채를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로테스크한 서술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그나시오는 그 도시의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저항 세력을 규합한다. 즉 “마을을 방어하기 위해” 특별 사면된 주정뱅이, 일 계급 특진과 월급을 두 배로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설득한 두 명의 경찰, 숫자를 채우기 위해 끌어들이던 퇴직 직전의 미화원 등. “페

론을 위한 삶”이라는 구호 하에 이루어지는 이들-‘선한 자들(los buenos)’로 표현됨-의 저항은 처음엔 독자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킨다. 이그나시오는 상위기관인 탄딜(la ciudad de Tandil) 시장에 전화로 걸어 공격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친다. 이처럼 모든 기관이나 공무원들 또한 ‘스파이’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숙인다. 따라서 공권력의 조직체제와 국가기능이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도시는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로 변한다. 이데올로기 정치화작업을 위해 스파이 또는 배신자의 혐의를 씌우는 이면에는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다. 예를 들면 스파이 혐의자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탄딜시청으로의 인사발령 약속 등.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해자 세력은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그 혐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를 날조하는 치밀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이면에는 늘 개인 및 집단이기가 만연하고, 자유, 조국, 페론의 이름 하에서 모든 일탈행위가 가능한 사회이다.

사실의 왜곡과 정보의 조작 또한 일반화된 사회로 변한다. 자치정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탄딜 시장의 기자회견 장면은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기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저널리즘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 경찰을 풀어 그들을 철저히 감시해. 현장 접근은 못하게 하고(...) 당신들 불필요한 말은 하지마. 공산주의자, 무기, CGT 폭탄 테러, 신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자동차 습격. 이상(...)  
기자들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 기자양반, 경찰의 폭력은 전혀 없었소. 그들은 공권력에 도전한 공산당원들이요(...). 군대는 지방정부 명령 하에 있소. 단지 사태가 심각한 경우에 한해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요.(64-65)

언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경찰의 무력진압 사실에 대한 은폐와 왜곡은 사건의 경위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의 쓴웃음을 유발

하게 하는 공식적인 언술에 대한 회화화이다.

이들에 대응하는 무력투쟁 역시 회화의 대상으로 변한다. 투쟁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 원시적인 병기의 사용, 초보적인 형태의 투쟁을 과장되게 일그러뜨리는 묘사를 통해 그로테스크한 투쟁으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이 도시의 방역용 비행기-희생자 집단의 최상의 병기-를 이용해 적들에게 살충제를 살포하고, 살충제가 떨어지자 가축의 배설물을 공중에서 투하한다. 빗줄기와 함께 배설물이 혼합되어 거리의 사람들은 미끄러지고, 서로 부딪치는 등 거리는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그로테스크적 표현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이 민중문화와 카니발의 웃음에서 발견한 양가적 성격 중 특히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요소에 그 가치를 둔다.<sup>7)</sup> 즉 그릇된 전통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비틀려진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웃음을 이용한다. 그러나 소리아노의 소설에서는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서술되고 있는 양 세력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배설물 세례를 받은 시민들 모두가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파괴적인 요소가 서술의 중심 축을 이룬다. 다시 말해 억압과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 세력과 이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력 대응하는 반대세력,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피지배세력 및 지식인들을 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쟁은 '정화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해자 세력들이 사들인 살인 용병들이 가세하면서 그 폭력성과 잔인성이 절정에 달한다. 모든 결정은 이들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되고, 이들의 정화작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어느 세력을 막론하고 제거 대상으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 집단은 물론이고 가해자 세력도 새로운 희생자로 변한다. 그들의 무력투쟁은 도시전체가 패배한 싸움

7) 바흐친에 의하면, 카니발의 웃음은 양면 가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모든 제도의 모순과 한계성을 강조하는 카니발의 웃음은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으로 안정된 것을 불안정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긍정하고 부정하며 모든 것을 매장하고 소생시키는 힘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카니발의 웃음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힘에 있다(김육동, 1988: 244-245).

으로 변한 것이다. 페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시작해 무력충돌로 변한 이 분쟁이 남긴 것은 결국 서로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 그에 따른 살인과 마을의 파괴가 전부이다. 따라서 양 세력이 처음에 추구했던 목적이 이미 상실됨으로써 투쟁에 참여한 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투쟁으로 변한다.

“이그나시오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구스만과 마떼오가 살해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모두 난장판으로 만든 비행기도. 이 악몽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고 자문했다.”(130)

이 인용문은 서술자를 통해 가해자 세력에 가담한 한 인물의 생각을 묘사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폭력행위에 가담하고, 폭력의 희생자로 변한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한탄하는 인물의 내면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혼돈의 세계를 경험했던 이들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은 페론주의 공간은 허구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페론을 위해 맹목적으로 투쟁했던 세르비뇨가 페론의 이름으로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는 용병을 향해 내뱉은 말은 페론주의의 허구성을 잘 보여 준다.

“-네놈이 페론주의자라면 내가 그만 두겠다.”(136)

이 인용문에서 “페론주의자에게는 동료 페론주의자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라는 페론주의의 오랜 모토가 무너지고, 페론주의의 정체성을 상실한 페론주의의 비극적인 종말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투쟁에 참여한 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엄습함으로써 정부의 통치능력 결여는 이미 누가 보아도 분명해졌고 군부의 개입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라디오를 켰다. 폴로니아 벨라의 상황에 관한 뉴스 속보가 방

송되었다. 시장이 주동한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혼란상태에 빠진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연방경찰은 군대를 파견했다(...)

- 군대가 이미 오고 있다. 지금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143; 149)

이렇듯 정치는 페론주의 내부의 극단적인 두 세력간의 야만적인 대결로 변모하였고 폭력이 일상화되면서 시민들에게 교훈을 주어 군으로 하여금 통제불능상태에 빠진 페론주의를 대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도입할 수 있게 한 터전이 마련되었다.<sup>8)</sup> 따라서 1976년 이후 군부에 의해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억압은 무능력한 페론주의로부터 계승되었고, 페론주의의 공간 또한 죽음의 공간이었다는 점을 그려냄으로서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그 비판으로 유도한다.

#### IV. 『겨울의 병영』: 폭력의 공범관계

『겨울의 병영』은 앞에서 살펴본 『더 이상의 고통이나 망각은 없을 것이다』의 연결 작품이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왔던 폴로니아 벨라는 극단적인 두 세력으로 분할되고 무질서상태로 변함으로써 군 개입의 명분을 만들어 준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현실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 상징적인 공간은 『겨울의 병영』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이미 암시되었듯이 군사정권이 권력을 지배한 상태이다. 이 작품 또한 독재상황을 즐기는 지배세력과 억압받는 민중계층으로 대표되는 두 계층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그리고 있다. 즉 소외계층의 관점에서 본 브로세소 기간의 억압을 비판적으로 고발한다.

일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된 이 소설은 1979년 어느 날 국민적

8) 1976년 3월의 군부쿠데타는 여태까지의 모든 군부쿠데타를 종식시키기 위한 쿠데타로 받아들여졌다. 아르헨티나 국민과 대다수 정당지도자로부터 지지를 받은 비델라 군사정권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페론시대의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폭력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아르헨티나 재건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민만식·권문술, 1985: 86).

화합을 위해 민중축제를 준비하는 군부로부터 초대받은 2명의 이방인들, 즉 탱고가수 갈반과 쇠퇴기에 접어든 복싱선수 로차가 팔로니아 벨라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틀동안 이들의 눈에 비쳐진 사회전반에 일상화되어 있는 폭력과 주민들의 이중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외관상 평화롭게 보이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가정집, 군인들과 경찰용 지프의 엔진소리의외엔 늘 황량한 거리, 그리고 공공장소를 비롯한 마을 전체에서 행해지는 엄격한 감시와 통제 등을 목격하면서 마을에 잠재해 있는 질식할 듯한 폭력의 징후를 느낀다. 즉 “이 마을의 일상생활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통해 묘사된다”(Plotnik, 1985: 563). 이러한 폭력의 징후는 마을의 창설작업에 참여했던 전 미장이인 밉고의 출현과 함께 가시화 된다. 이 마을 출신 중 유일하게 체제를 비판하고 다니는 그는 우연히 알게 된 갈반에게 최근의 폭력에 발생했던 역사를 증언한다.

“거의 모든 주민들의 친척 중 한 명은 죽었지. 가장 젊은 친척 아니면 미친놈 취급받던 자들이었지.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며 지낸다네.(...) 군발이들이 이 마을을 점령하자마자 일어난 일들이지.”(38)

또한 그는 일상화된 폭력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채 평상시처럼 미사에 참석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는다.

“정말 환장하겠어.(...) 돈 몇 푼에 영혼도 팔아먹을 놈들. 하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미사는 빠지지 않는다네.”(37)

아르헨티나의 삶이 녹아 있는 탱고를 부르는 갈반과 축구와 함께 국민적인 스포츠였던 복싱을 하는 로차는 아르헨티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군부는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들을 이용해 민중축제를 열어 억압적 폭력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민중을 지배하려는 문화정책을 시도한다. 이러

한 군부의 의도는 마을의 벽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안드레스 갈반의  
대형 리사이틀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황금 목소리  
월요일 22시 아베니다 극장  
하나로 일치된 국민과 군인  
평화와 승리를 위해”(59)

시간이 흐를수록 당국과 초대객들 사이의 불신은 깊어가고, 이들에 대한 감시와 공격적인 행위는 증가한다. 불손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폭력적 행위 또한 일상화되면서 주민들의 도덕성 상실과 무관심이 팽배해진다.

“짜구려 식당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고, 왼손에 권총을 든 군인이 열 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머리를 끌고 나왔다. 보도에 그를 툭 바로 세우고 개머리판으로 등을 내리친 후 차안으로 밀쳐 넣었다.(...) 술집에서는 나와보는 사람 하나 없었고,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조차 없었다.”(61)

안드레스 갈반은 자신이 축제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군부의 민중융화정책에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로차가 게임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한다. 로차는 게임을 포기하는 행위를 비겁한 행동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사랑에 빠진 축제 준비위원장인 변호사의 딸에게 자신의 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감성적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의 단결과 분산을 체제유지의 무기로 사용하는 독재체제하에서 두 사람의 결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갈반은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연인들처럼 로차와 그녀도 부부가 될 수 있었을 거야”(145)라고 한숨짓는다.

마침내 게임은 시작된다. 게임은 권위주의체제에 대항하는 민중투쟁의 상징으로 변하고, 인간의 육체는 권력의 파괴적인 위력과 민중의 몰락을 보여주는 '은유적인 매개체(el instrumento metafórico)'로 변한다.<sup>9)</sup> 따라서 로차의 완벽한 파괴는 스포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볼 때 끝없는 억압정책에 기초를 둔 군부세력에 의해 완벽하게 지배된 민중세력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제 전야 파티석상에서 가진 로차와 상대한 육군 중위 마르시알 세벨베다의 발언에서 이러한 요소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민들과 제가 속해 있는 자랑스런 군대는 세계 전투에 참가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스포츠 전쟁입니다. 저는 그 전투에서 싸울 것이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전쟁에선 많은 희생을 치르며 승리했지만, 오늘은 평화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군인들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자유로운 나라도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141)

이 소설의 결론부분은 애매 모호하게 끝난다. 서술자는 빈사상태에 빠진 로차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로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소리아노가 이 작품을 끝낸 시기인 1979년 회복하기 힘든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아르헨티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로차의 운명을 통해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복싱선수와 탱고가수로 상징되는 희생양들을 이용해 민중의 화합을 이루려는 의도는 질서유지와 국가재건이라는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워 수많은 반대세력과 민중에게 무차별적인 억압행위를 자행한 군부의 이중적인 전략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9) 육체와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 은유적인 표현은 Mario Cesário, “Cuerpo humano e historia en la novela del Proceso” en Herman Vidal(ed.), *Fascismo y experiencia literaria: Reflexiones para una reanonización*(1985), Minnesota,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pp.518-525를 참조할 것.



보여주고 있다(Plotnik, 1985: 570).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 파악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시 군부의 억압정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민사회가 공범역할을 했으며, 최소한 폭력에 대한 수동적인 방관자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회적 현상에 무관심한 시민들에 대한 밍고의 '경멸적인 시선'(40)은 폭력과 공포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작가 자신의 시선이다.

『더 이상의 고통이나 망각은 없을 것이다』에서 이미 무관심한 사람들이 소개되었다.(...) 『겨울의 병영』은 은유가 아니라 군사 쿠데타 이후에 한두 달 동안 내가 머물고 있을 때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다. (...) 모든 주민들은 어깨가 축 늘어지고 민주화의 가능성에 회의론 품고 결국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는 이 마을은 1976년의 아르헨티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 (...) 1978년 월드컵이 끝났을 때 이러한 공범관계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Reati, 1992, 92)

이러한 공범관계는 군용차가 지나갈 때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노인들과 퇴직자들에서부터 현재 군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듯 아르헨티나에서 '더러운 전쟁'과 같은 반인륜적인 사건이 가능했던 요인은 억압과 폭력을 자행한 군부, 군부에 협조했던 세력 그리고 단순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공범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폭력과 무질서의 원인은 직접적인 억압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가는 복싱선수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밟고 지나가고, 인신공양적인 희생자들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폴로니아 벨라의 주민들처럼 폭력의 피해자들에게도 있음을 고발한다.

## V. 나가면서

198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군사정권에 의해 체계적이고 비밀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졌던 최근의 폭력적 역사를 재현하고 있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 착란을 그린 가장 주관적인 소설에 이르기까지 사회 현실을 표현했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Sábato, 1982, 108)는 에르네스토 사바토(Ernesto Sábato)의 지적처럼, 군부독재의 의해 피폐화된 아르헨티나 현실을 고발하지 않은 작품은 거의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본고에서 다룬 소리아노의 작품 또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소리아노가 주목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군부가 저지른 ‘더러운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군부이전 3차 페론주의 정권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3차 페론정권 이전에는 페론의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의 격렬한 투쟁으로 혼란상태에 빠졌으며, 페론이 복귀한 뒤에는 페론주의 내부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두 세력간의 야만적인 투쟁으로 대혼란 상태가 완성되었다. 폭력이 일상화되면서 대다수 국민은 페론의 민중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원했고, 군부는 국민의 지지 하에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사회정화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더러운 전쟁’을 통해 폭력, 살인, 실종이 제도화되고 일상화되어 버린 아르헨티나 현실에 대한 책임은 폭력을 자행한 군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의 원인은 페론주의의 무능력에 있고, 폭력정치에 능동적으로 협조한 세력들을 비롯해 폭력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모든 집단은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의 공범자이다.

결론적으로, 소리아노의 두 작품을 통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국가재건이라는 명목 하에 군부독재의 의해 자행된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은 국가 재통합을 실현하지 못하고 무질서의 상태로 내몰았던 페론주의로부터 계승되었고, 폭력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공범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리아노의

이 두 작품은 최근 아르헨티나 사회의 모순을 반영해 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극복해 비극적인 과거의 반복을 피하고자하는 작가의 희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옥동 (1988),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 민만식·권문술 (1985), 『전환기의 라틴아메리카: 정치적 상황과 국제 관계』, 탐구당.
- 우덕룡·김태중·김기현·송영복 (2000), 『라틴아메리카: 마야, 잉카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 송산출판사.
- 後藤政子 (1985), 『라틴아메리카 현대사 : 격동기의 정치·경제사』, 한울.
- Angela del Pilar, Cortés (1986), "Historia y ficción en *No habrá más penas ni olvido* de Osvaldo Soriano", *VII Congreso Nacional de Literatura Argentina*, Tucumán, Universidad Nacional de Tucumán, pp.219-223.
- Avellaneda, Andrés (1986), *Censura, autoritarismo y cultura: Argentina 1960-1983*, Buenos Aires,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 Catelli, Nora (1983), "Ni penas ni olvido: Entrevista con Osvaldo Soriano", *Quimera*, No. 29, pp.26-31.
- Cavarozzi, Marcelo (1988), "1955년 이후 아르헨티나에서의 정치적 순환", 오도넬·슈미터·화이트 헤드(ed.) 『라틴아메리카와 민주화』, 한울, pp.45-81.
- Cesário, Mario (1985), "Cuerpo humano e historia en la novela del Proceso", Hernán Vidal(ed.), *Fascismo y experiencia literaria: Reflexiones para una reanonización*, Minnesota,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pp.501-531.
- Gandolfo, Elvio E. (1991), "Osvaldo Soriano: cómo contar la historia", Giuseppe Petrono(ed.), *Los Héroes "difíciles": Literatura policial en la Argentina y en Italia*, Argentina, Corregidor, pp. 135-141.
- Giacomimo, Marta (1989), "Espacios de Soledad: Entrevista con Osvaldo Soriano", *Quimera*, No. 89, pp.45-51.
- Moran, Carlos Roberto (1984), "La obra de Osvaldo Soriano", *Revista nacional de Cultura*, No. 255, pp.245-249.

- Newman, Kathleen (1992), *La violencia del discurso: el estado autoritario y la novela política argentina*, Buenos Aires, Catálogos.
- Plotnik, Viviana (1985), "Alegria y 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 propuesta de una categoría de mediación socio-histórica para el análisis discursivo", Hernán vidal(ed.), *Fascismo y experiencia literaria: Reflexiones para una recanonización*, Minnesota,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pp.532-577.
- Reati, Fernando (1992), *Nombrar lo innombrable: Violencia política y novela argentina: 1975-1958*, Buenos Aires, Legasa.
- Sábato, Ernesto (1982), *La cultura en la encrucijada nacional*, Buenos Aires, Sudamericana.
- Soriano, Osvaldo (1979), *Triste, solitario y final*, Barcelona, Bruguera.
- \_\_\_\_\_ (1983), *No habrá más penas ni olvido*, Buenos Aires, Bruguera.
- \_\_\_\_\_ (1983), *Cuarteles de invierno*, Buenos Aires, Sudamericana.
- \_\_\_\_\_ (1987), *A sus plantas rendido un león*, Madrid, Mondadori.
- \_\_\_\_\_ (1993), *El ojo de la patria*, Barcelona, Mondadori.

## Abstract

### **la violencia política en la sociedad argentina a partir del año 1973 y la novelística de Osvaldo Soriano**

-En torno a *No habrá más penas ni olvido* y *Cuarteles de invierno*-

Chong-Yul Park  
(Chosun University)

La nuestra aproximación a los textos literarios que representan la historia argentina tendrá por objeto el análisis de dos novelas de Osvaldo Soriano que, publicadas durante el período del proceso militar, refieren la narración al pasado inmediatamente anterior y posterior al golpe militar de 1976 respectivamente: *No habrá más penas ni olvido*(1980) y *Cuarteles de invierno*(1982). La primera obra dibuja la experiencia social durante la segunda etapa del gobierno peronista y la aceleración de conflictos internos que se produjo a partir de la muerte del General Perón. La segunda enfoca los tópicos de los primeros años del golpe militar: violencia, represión y muerte. Todos los personajes funcionan simbólicamente como expresiones de una situación social que se extiende más allá de la propia vida personal o la circunstancia espacio temporal.

En líneas generales, la historia que funciona como referente del discurso literario en las obras que hemos seleccionado para nuestra investigación es una historia de violencia y persecución. Sin embargo,

sería erróneo pensar que esa violencia tuvo su comienzo en el golpe militar de 1976. En el momento del golpe, la crisis de hegemonía política ya alcanzó una extensión y profundidad inusitadas. Por lo consiguiente, la violencia llevada al cabo por la dictadura militar no es un nuevo fenómeno, sino una continuación del peronismo impotente.

**Key Word:** novela argentina(아르헨티나 소설), Osvaldo Soriano(오스발도 소리아노), peronismo(페론주의), dictadura militar(군부독재)